

수상 소감

분석과 평가

백민석

〈김현문학패〉가 한 평론가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니, 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문학을 할 생각으로 처음 찾아간 아카데미에서 교재로 접했던 책이 기형도의 『입 속의 검은 잎』이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이 시집의 시인과 해설을 쓴 평론가 모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읽어보니 시도 좋았고 해설도 좋았던 시집이었습니다. 책을 손에 쥐면 설레는 마음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시집의 두 저자가 둘 다 이미 돌아간 분들이라니.

그렇게 해서 문학을 향한 저의 첫발은 우연히도 죽음에 가닿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썼던 소설들에서 죽음의 기미가 느껴진다면 아마 두 고인과의 만남, 이미 죽은 문인들의 글을 읽고 있다는 낯설고 두려운 충격 덕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죽은 사람이 나오는 소설도 쓴 적이 있죠. 첫 책이 문학과지성사에서 나왔을 때 기형도와 김현 언저리에 제 이름도 놓인다는 생각에 좋아라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나서 별일이 다 있었죠. 책을 열 권도 넘게 내고, 얼마나 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열 권이 넘고 나서부터는 세지 않았습니다. 절필도 하고, 절필하지 않았다면 저는 얼마나 더 많은 책을 냈을까요? 그

리고 돌아와서 또 열심히 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정하고 싶습니다만, 저한테는 문학이 언제나 최우선 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랬겠지요. 그리고 나이도 먹었죠. 문단도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어서 젊은 축이라고 우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 늙어감과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할 나이입니다.

소설 말고도 이제는 다른 글도 씁니다. 20대 땐 서평이나 에세이 청탁이 들어와도 뭘 써야 할지 알지 못해 부담이 컸습니다. 서평을 쓰더라도 읽은 책이 좀 있어야 쓸 텐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에세이를 쓰더라도 세상에 대해 뭘 알아야 쓸 텐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읽은 책이 없는 작가의 무식함, 세상을 통찰할 수 없는 작가의 무능함, 이런 자각들이 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김현의 『전체에 대한 통찰』이, 내용은 다 잊었지만 제목만은 아직도 선명하게 제 인상에 남아 있는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절필할 무렵 제게 절실했던 것이 ‘전체에 대한 통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저한테 왜 절필했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참으로 구구절절한 대답을 늘어놓는데, 그중 하나가 아는 게 없어서 그랬다는 대답입니다. 저는 확실히 책 읽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책을 읽어야 했고, 책을 읽었고, 그래서 십 년이라는 그 공백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 절필하지 않고 계속 소설을 썼다면 저는 지금 쫓살아서 죽은 작가, 좀비 작가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은 청탁이 오면 뻔뻔하게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전과 다른 점입니다. 여전히 읽은 책은 부족하고 통찰력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일단 생계 걱정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뻔뻔함으로 썼던 책이 『리플릿』입니다. 분류는 미술 에세이로 되어 있지만 실은 에세이보다는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릿』

은 제가 처음 써본 평론 비슷한 글입니다.

그 책을 쓰기 전까지 평론이란 저에겐 그저 남의 일, 그래서 굳이 진지할 필요가 없는 남의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책임도 못 질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도 했죠. 하지만 『리플릿』을 쓰면서 비로소, 남의 작품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작품을 감상할 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고, 평가를 내리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의욕을 잃은 평론가들의 목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실은 비평은 창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와 잇몸의 사이죠. 미국의 미술평론가들이 아니었다면, 미국의 현대미술은 지금 같은 세계적인 명성은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끝에, 저는 『리플릿』의 마지막 회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러 작가의 여러 작품을 다루면서, 저는 평가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분석하려 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저는 비로소 이 말이, 제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뭐라 해야 할지 알지 못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만나본 적이 없이 글로만 느슨한 동료 관계를 맺었던 평론가들에게 지난 30여 년 내내 들려주고 싶었던 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작가에 대해, 한 작품에 대해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평가에 도달하기까지 충분한 분석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슬라보예 지젝은, 그가 거론한 책은 어떻게든 사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최고로 위험한 서평가입니다. 그가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석은 일종의 상징화이다. 무의미한 상상적 흔적들을 상징계로 통합하는 것이 바로 분석이다. [...] (분석은) 상징적인 좌표와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화의 틀을 생산(한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에 이것이 분석하는 일입니다. 그렇

다면 평가란 분석의 자연스런 결과로, 작가와 작품에 “상징적인 좌표와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됩니다. 분석과 평가는 이렇듯 비평 행위의 앞뒤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먼저 있고 나중에 분석이 이뤄진다면, 어딘지 모르게 비평 행위가 정당한 방식으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겠죠.

요즘은 외국 소설에 대한 리뷰도 연재하고 있습니다. 소설 리뷰도 『리플릿』을 쓸 때처럼 가능한 한 진지한 자세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평 행위에 대해 평론가도 아닌 소설가가 이러쿵저러쿵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난센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애써 찾아 읽는 이들이라면 한국문학이, 소설이, 비평이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오래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많은 의견이 오갔다는 것도 알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의견들에 제 의견 하나쯤 보탠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석이 충분치 않았을 때, 평가는 문학 외적인 기준과 가치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 작가, 한 작품에 대한 평가가 분석에 의지하지 않을 때, 결국 떠도는 소문과 인간 관계에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요? 한국 문단이 한국 사회에서 나 홀로 깨끗한 청정 지역으로 남아 있다고 믿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문단이 학연과 인연, 지연, 연고주의와 정실주의에 좌우되지 않는 정당하고 공정한 사회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문인들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고 김현 선생이 평론가였고, 이 행사가 그를 기리는 자리이고, 제가 수상한 것도 심사라는 비평 행위의 결과이니, 제가 ‘분석과 평가’에 대해 감히 말하는 것이 결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듣기에 달콤하고 위로가 되는 말은 할 줄 모릅니다. 제가 첫 책을 냈을 때, 어떤 문학 담당 기자가 “요즘은 후일담 소설이 유행하니 그쪽으로 한번 써보

지 그러냐”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등단한 지 삼십 년이 가까운 지금도, 그렇게 쓰면 성공하기 어려우니 이렇게 한번 써보라는 충고를 들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남과 같아지려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남과 달라지려고 글을 씁니다. 저는 제힘이 닿는 한 항상 남과 다르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늘 실패를 면하지 못하지만, 동시에 그 실패한 노력이 저를 계속 작가로 남아 있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헤밍웨이는 마크 트웨인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웨인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청중들에게 ‘시험’해봤다고 믿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마도 그 사람들은 좋은 부분은 빼버리고 나쁜 것들을 집어넣게 했겠죠.” 우리 인생과 문학이 바로 이렇지 않은가요? 고맙습니다.